

中企 제조·업무혁신 열쇠 ‘피지컬AI’… 데이터 자산화 시급

중기중앙회, 재경부와 정책토론
금 회장, 박영선 위원장에 과제 전달

박 위원장, 기조연설서 AI 혁신 강조
반복 업무부터 에이전틱AI로 전환
K-온톨로지 표준·AI팩토리 구축

제조데이터·노하우 자산화 강조
金 “中企 AI 대전환 주체로 참여”
업종별·단계별 맞춤 지원정책 필요

인공지능(AI)의 판단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피지컬AI가 산업 현장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온톨로지 표준’과 ‘AI팩토리 구축’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피지컬AI의 확산을 위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데이터 자산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AI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이틀째 행사로 재정경제부와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 혁신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AI의 2막, 중소기업의 미래를 바꾸다’는 주제의 기조연



중기중앙회는 2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중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 혁신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왼쪽 4번째부터)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설을 통해 국가, 산업, 행정데이터를 통합적 구조로 연결하는 K-온톨로지 표준, 산업별 온톨로지 표준 확립, 그리고 데이터를 지식으로 만드는 AI팩토리가 기업·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학 용어에서 출발한 ‘온톨로지(Ontology)’는 AI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체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에이전틱·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해 업무와 제조현장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연결된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데이터를 지능으로 바꾸는 ‘AI 팩토리’를 새로운 생산기반으로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생성성AI→에이전틱 AI→피지컬AI의 발전 수순을 참고해 견적서·회의록 작성 등 반복 업무, 주문 접수 등 업무 흐름, 오래 걸리는 병목 등 기존 업무를 에이전틱AI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표, 현장 직원, IT 담당자를 중심으로 ‘작은 AI전환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대한 플랫폼보단 연결 가능한 데이터와 현장의 경험, 노하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이날 ‘피지컬 AI의 비전과 중소기업 데이터 자산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로봇은 3년 뒤에도 살 수 있지만, 지나간 3년의 데

이터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 현장에 쌓인 공정 데이터와 숙련 노하우”라며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별 기업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협동조합은 공통 기준과 공동실증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제공하는 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내놓을 이유(보상)와 안전장치(주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됐으며 피지컬 AI 확

산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재정·세제·금융·규제를 하나로 묶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이 이날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중소기업 정책과제집에는 ▲업종별 제조데이터 표준·가버넌스 체계 구축 ▲제조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업종·공정별 AI·로봇 표준분류체계 마련 ▲업종 공통 AX 모듈·표준 패키지 개발 지원 ▲협동조합 중심 업종별 AX 추진·운영체계 구축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AI·AX 실무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 AX 준비도 기반 단계별 세분화된 지원체계 구축 ▲비제조분야 AI·AX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피지컬AI의 핵심은 제조현장의 데이터다. 중소기업 제조현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고질적인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수십년간 쌓아온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피지컬 AI와 연결해 제조 노하우를 이어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AI 대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단계별, 산업별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업종별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AI를 신속하게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metro

“사람보다 먼저 화재현장에 로봇 투입”

FIX 2026서 만난 미래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무인소방·물류로봇 선배
GM,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 논의

“초기 화재 진압과 현장 탐지가 가장 우선 목표입니다.”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FIX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 무인소방로봇 앞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스스로 불을 판단해 진압하는지 묻자 “다 원격이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람이 안전한 곳에서 조종해 화재 현장을 살피고 초기 진압을 돕는 방식이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프’를 기반으로 만든 이 로봇은 물을 뿌리는 장치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갖췄다.

같은 전시관에 자리한 현대위아의 물류로봇 MPR(Mobile Picking Robot)은 반복작업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이동과 물품을 집는 기능을 결합해 운반과 분류작업을 지원한다. 위험 지역에 사람 대신 들



브라이언 맥머레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대표가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어기는 소방로봇과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물류로봇이 한 공간에 놓였다.

기조강연장에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역할이 화두였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한국연구개발법인(GMTCK) 사장은 AI가 판단과 행동에 관여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결정권과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을 분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 설계에서도 사람의 감정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여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화물운송에 적용하는 과정과 무인운행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라이드플렉스는 지난 7월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과 두 개 노선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물류거점으로 이어지는 일반도로도 운행한다. 현재는 안전요원이 탑승하며 2028년 무인운행 전환을 목표로 한다.

조광래 마스오트 이사는 기존 트럭에 자율주행 장비를 장착하는 ‘마스파일럿’을 소개하고, 유상운송 실적을 정식 운행 하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혁 기자 sh95@

대구·경북 첫 통합펀드 1300억 규모 출범

연내 출자 착수, 2000억 벤처펀드 조성

최초의 지역 통합 모펀드인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가 130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갖고 대구·경북권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 울산, 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결성하는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최초의 지역 간 통합 모펀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원을 투입하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iM뱅크,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 이수페타시스, 화신, 한국OSG 등 대구·경북 지역의 은행, 대학, 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

역사회 구성원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총 13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대구시, 경상북도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연내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선 펀드 결성식과 함께 iM뱅크,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간 ‘대경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에 체결한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간 ‘동남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이행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이다.

/김승호 기자

웅진프리드라이프, 건강케어 서비스 선택

삼성생명과 건강관리·돌봄 강화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과 손잡고 ‘건강케어서비스’를 선보인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삼성생명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처음으로 건강케어 서비스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건강케어서비스는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중대 질환 진단 후 돌봄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그동안 가족이 도맡아 온 돌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올해 프리미엄 웨딩홀 사업 진출, 업계 최초 ‘크루즈 전세선’ 론칭, ‘웅진프리드’ 상조 시리즈 출시, 설날엔 서울제중·안양 장례식장 신규 개장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와 인프라를 넓혀왔다. 이번 삼성생명과와의 협약으로 건강·돌봄 영역까지 강화하면서 결혼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객의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김승호 기자

HD현대로보틱스, AI 양팔로봇 첫선

정밀작업 특화 로봇 공개

HD현대로보틱스가 제조 현장의 정밀작업에 활용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양팔로봇을 처음 공개했다. 양팔과 손의 작업 능력을 높이고 자체 개발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탑재해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HD현대로보틱스는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

2026(FIX 2026)’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양팔로봇’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능형 양팔로봇은 사람의 상체처럼 양팔과 다섯 손가락을 갖춘 로봇이다. 제한된 구역에서 정해진 작업을 반복하는 기존 산업용 로봇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제조 현장에 필요한 정밀작업 능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보행보다 양팔과 손의 작업 성능에 중점을 둔 상반신형 구조를 채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솔홈데코

‘더 한솔홈데코’ 새 단장

한솔홈데코가 공식 쇼룸 ‘더 한솔홈데코’를 새 단장에 선보였다. 21일 한솔홈데코에 따르면 ‘온전히 나를 위한 공간’, ‘웰니스(Wellness)’를 컨셉으로 한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은 벽과 가구, 바닥의 패턴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한솔홈데코의 ‘심리스(SEAMLESS)’ 인테리어 자재를 경험할 수 있다. 새롭게 조성된 쇼룸은 다도공간, 주방, 욕실 등 총 3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